

“전연의 맹약” 체결과정과 사신들의 교섭 활동*

이 장 욱**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전연의 맹약”의 역사적 배경
- III. “전연의 맹약” 당시의 거란, 중국과 주변국 간의 정황
- IV. 전연의 “대치”와 “맹약” 과정에서 사신들의 활약
- V. “전연의 맹약” 주요 내용과 평가
- VI. 나오는 말

한글초록

11세기 초 동아시아는 북방의 새로운 강국 거란과 전통의 중화제국인 송조가 당제국 멸망 이후에 공백기였던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오늘날 하남성의 전연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된다. 그러나 거란과 송조 각국이 가지고 있었던 대내외적인 문제점은 양국간 전면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커 양측의 집권 엘리트들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결국 거란과 송은 두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중재자 왕계충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NAHF-2019-기획연구-21 ‘전통시대 使行(使臣)으로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연구위원

의 활약으로 화의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연의 맹약”에 대한 여러 연구성과들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정치, 군사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양국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과 그 속에서 양국을 분주히 오가며 활약했던 사신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전연의 맹약”을 다시 살펴보았다. 과거 동아시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전연의 맹약”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美·中간의 패권 경쟁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재조명해보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주제어

거란, 전연의 맹약, 연운16주, 사신, 왕계충

I. 들어가는 말

11세기 초 북방의 신흥강국인 거란(契丹)과 중국대륙을 새로이 통일한 송조(宋朝)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연(澶淵, 오늘날 중국의 河南省에 위치)이라는 곳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양국 간의 타협으로 맺은 “전연의 맹약”¹⁾으로 향후 100여 년 동안

1) “전연의 맹약”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들 중 참조할 만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Tao Jing-shen (陶晉生), 1988, *Two sons of heaven: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Tucson,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David Curtis Wright, 2005,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 Leiden and Boston: Brill, pp. 1-100; Lau Nap-yin (劉立言) and Huang K'uan-chung (黃寬重), 2009, “Founding and consolidation of the Sung dynasty under T'ai-tsu (960-976), T'ai-tsung (976-997), and Chen-tsung (997-1022),”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part I*, eds.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b Smith,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60-270; 이석현, 2009, 「澶淵의 盟의 성립과 宋人의 認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거란, 송을 비롯하여 주변국들과 자유롭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초 이래 1세기에 걸쳐 韓·中·日 3국 및 구미(歐美)의 동아시아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전연의 맹약”을 비롯한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관계사(對外關係史)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중국과 아시아 동쪽에 자리 잡은 국가들과의 관계사는 주로 한·중·일 3국과 오늘날 중국의 동북삼성(東北三省)인 만주(滿洲)와의 관계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관방사료(官方史料)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교류, 각국 사신단의 왕래와 이에 대한 분석, 문화 전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외교 형식이나 문서, 의전, 사신단 구성원들에 대한 분석 및 사행 루트 등으로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게다가 20세기 이래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고고학의 새로운 성과물이나 한국, 일본 등지에서 발견된 고문서(古文書) 등에 의해 더 많은 연구 분야와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파견된 사신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그들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사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미흡했던 “전연의 맹약”을 전후로 송과 거란의 정책결정자와 사신의 역할, 그리고 활약상을 재고하고자 한다.

“전연의 맹약”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송과 거란 정책 결정자와 사신들의 활약으로 양국의 군주와 조정(朝廷) 사이를 오가며 서로에게 합리적인 명분을 세워주고 평화와 실리를 추구하는

識], 『동북아역사논총』, 26, pp.165-203; 박지훈, 2011, 「송요간의 전쟁과 和議 - 澶淵의 전역과 맹약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4, pp.95-130.

일치된 목표를 이끌어냄으로써 마침내 맹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향후 1세기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하는데 일조하게 되었으니 이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운 동북아 국제 정세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의 선례로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연의 맹약” 체결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진행 과정 및 후대영향을 살펴보고, 송과 거란 사이에서 외교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정책 결정자와 사신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맹약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해보고 오늘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대처 방법을 반추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II. “전연의 맹약”의 역사적 배경

1. 당조의 멸망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서기 874년 중국 남방지역에서 발생한 왕선지(王仙芝), 황소(黃巢)의 농민반란²⁾은 향후 수년간 중국대륙을 휩쓸면서 전국 각지를 황폐화시켰다. 지난 1천여 년간 귀족 중심의 통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근간은 9세기 말 농민 반란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게 되는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³⁾

2) 당말 황소의 반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Robert M. Somers, 1979, “The end of the T’ang,”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1*, ed. Denis Twitchett,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14-762 참조.

3) David G. Johnson, 1977, “The last years of a great clan: The Li family of Chao chun in late T’ang and early Su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 No.

당(唐)제국은 과거 2세기 반에 걸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되어 주변국들과의 광범위한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10세기 초 당의 멸망과 더불어 중국은 오대십국(五代十國)이라는 군웅할거(群雄割據)의 분열 시대로 접어들고, 이 때문에 중국 변방에 대한 방어가 약해져 오늘날 북경(北京)을 포함한 변경의 주요 군사지역들이 이민족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⁴⁾ 이것은 마침 9~10세기에 유럽에서 활동했던 여러 민족들이 왕국들을 형성⁵⁾한 것과 유사하게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주변국들이 민족의식의 자각과 함께 여러 새로운 정권들을 창출하게 되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새로이 일어난 거란을 비롯하여 천 년만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베트남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 구미 학자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중국과 주변국들(China and the surrounding states)” 혹은 “이민족들 사이에 포위된 중국(China surrounded by the alien states)” 같은 표현⁶⁾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 pp.5-102.

4) Naomi Standen, 2009, “The Five dynasties,” pp.38-132, Hugh R. Clark, 2009, “The Southern kingdoms between the T’ang and the Sung, 907-979,”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part 1*, eds.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33-205.

5) 로마제국 멸망 이후 유럽 역시 843년 베르던 조약(Treaty of Verdun)을 기점으로 하여 프랑크 제국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 지역으로 분열, 재편되면서 오늘날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의 기본적인 국가 토대를 마련하였다. 베르딩 조약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Rosamond McKitterick, 1983, *The Frankish kingdoms under the Carolingians, 751-987*, London and New York: Longman 참조.

6)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1994, “Introduction,”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eds.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18.

당시 중국과 주변국들의 관계가 이전의 한당(漢唐)시기와 다르게 대등한 관계로 발전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당 이전의 중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변국들과 다양한 외교 형태를 취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펴왔다.⁷⁾ 일례로 10세기 이전의 중국은 고구려(高句麗), 발해(渤海)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우세했던 서북, 북방의 유목제국에는 온화한 제스처를 취해왔다. 그러나 그 외의 기타 서남지역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자산을 앞세워 힘으로 누르며 그들과의 국경을 유지하였다.⁸⁾ 이러한 상황은 당 후기(唐後期) 민족의식의 자각과 함께 등장한 각지의 여러 주변국들(multi-states)에 의해 10세기 이후의 중국은 북쪽으로는 거란과 여진(女眞), 동쪽으로는 고려(高麗)와 일본, 서쪽으로는 탕구트, 티베트, 대리(大理),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흡사 완전히 포위된 상태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10세기 이후 중국은 대외정책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수정과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힘의 균형, 지역적 특색, 문화의 한화(漢化)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정권을 구분한 대외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외교정책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이민족 제국인 거란, 여진에 대해서는 평화적 교류 정책과 수세적인 방어 전략을 폈다는 것이다. 반면 한반도와 일본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공과 책봉 형식으로 회유 정책을 펴는 등의 다중적인 외교정책을 취한 것에서 엿볼 수가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대외정책은

7) Franke and Twitchett, 1994, pp.1-21.

8) Charles Backus, 1981, *The Nan-chao kingdom and T'ang China's Southwestern frontier*,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k Edward Lewis, 2009, *China's cosmopolitan empire: The Tang dynasty*, Cambridge, Mass., pp.145- 178.

몽골제국이 등장하는 13세기 이전까지 약 3백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 계승되었고 이는 중국이 역사상 주변국들에 의해 수세에 몰리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2. 송조의 건국과 중국의 세계관

오대(五代) 마지막 왕조인 후주(後周) 금군(禁軍)의 수장이던 조광윤(趙匡胤, 후일의 송태조, 927~976, 재위 960~976)이 새로운 왕조 송을 세우면서 당조멸망 이후 붕괴되고 방치되었던 중원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를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후기 봉건시대(後期 封建時代)의 대표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사대부(士大夫) 중심의 통치체계가 이 시기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⁹⁾

송 태조와 태종의 40여 년간의 통치하에 중국은 황소의 난으로 파괴되었던 중국 각지의 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서서히 회복하여 체계화된 정치체제를 갖추게 되었다.¹⁰⁾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외부적으로는 주변 이민족들과의 변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족 중심의 중원지역을 “문명권”이라 하고 주변의 이민족을 “비문명권”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¹¹⁾ 이것은 마치 동 시기 서양의 로마, 비잔틴이나 사라센제국 등이 자신들과 야만인을 “문명”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했던 것과도 비슷하다. 그

9) 河元洙, 1995, 『宋代 士大夫論』, 『강좌중국사 III—士大夫社會와 蒙古帝國』, 지식산업사, pp.71-125.

10) Edmund H. Worthy, Jr., 1976, “The founding of Sung China, 950-1000: Integrative changes in military and political institutions,” diss., Princeton University; Lau and Huang, 2009, pp.206-247.

11) 朴志焄, 1989, 『宋代 華夷論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러므로 10세기 이전 문명권을 주도하던 여러 제국들이 모두가 이와 같은 방식이기에, 북방의 유목민들로부터 자국의 안보와 정권의 안정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던 것은 중국만의 독특성이기보다는 사실상 보편적이고 공통된 전근대시기 특징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진시황(秦始皇, 재위 기원전 221~210년)의 중국 통일 이후, 한족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계속되면서 한무제(漢武帝, 재위 기원전 141~87년) 시기에는 고대 유교 사상을 재정립하게 된다.¹²⁾ 중국은 이를 근거로 주변을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 오랑캐 즉, 사이(四夷)라 부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란 제도를 통해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다.¹³⁾ 당시 중국은 “천하(天下)라는 것은 곧 중국이며, 중국의 천자(天子)는 곧 세계의 지배자”라는 유교 사상으로 천하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발전해야 한다는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의 천자는 중국 입

12) Michael Loewe, 1986,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A.D. 220*, eds. De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26-746.

13) 전근대시기 중국 전통외교의 기본정책 및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들이 있다. John K. Fairbank, 1941,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 pp.135-246; John K. Fairbank,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西島定生 著,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社; Yu Ying-shih, 1986, “Han foreign relation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A.D. 220*, eds. De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77-462; Wright, 2005, pp. 11-38;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의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동양사학연구』, 101, pp.119-144.

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논리였다.

중국은 이미 한대(漢代)에 등장한 흉노(匈奴)를 비롯하여 중국의 북방과 서북지역 이민족 문제로 장기간 농경 대 유목이라는 대립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4세기 전후에는 마치 서양 로마제국으로의 게르만족 이동과 비슷하게도 흉노를 비롯한 오호(五胡)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대거 중국내로 이동하는 민족대이동의 역사를 경험하였다.¹⁴⁾ 흉노와 오호 이후에도 중국은 한당시기 천여 년 동안 유연(柔然), 돌궐(突厥), 토번(吐番), 회흘(回紇) 등으로부터 중국의 북방과 서북 국경지역을 끊임없이 위협받아왔다. 당조의 멸망 이후 이러한 세력들은 기존의 유목 상태에 있었던 강력한 유목제국을 중심으로 그 무대를 중국 서북에서 동북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거란, 여진, 몽골, 만주라는 제국들을 차례로 세우게 된다.¹⁵⁾

3. 거란의 등장과 연운 16주의 할양(割讓)

당말, 오대시기를 지나는 중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오늘날 몽골과 만주 지역에서는 거란이 새롭게 등장하여 나날이 성장하게 된다.¹⁶⁾ 거란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목민족을 통합하여 안정적인 정

14) Charles Holcombe, 2019, “The sixteen kingdom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2: *The Six Dynasties, 220-589*, eds. Albert E. Dien and Keith N. Knapp,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9-144.

15) Denis Sinor, ed., 1990,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 爱宕松男, 1959, 『契丹古代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内東洋史研究會; 張正明 著, 1979, 『契丹史略』, 北京: 中華書局; 舒焚 著, 1984, 『遼史稿』,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陳述 著, 1986, 『契丹政治史稿』, 北京: 人民出版社; Denis C. Twitchett and Klaus-Peter Tietze, 1994, “The Liao,”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eds. Herbert Franke

치체제를 구축하고 유라시아 동북의 초원에 강력한 기마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유목제국을 건국하였다. 10세기 초 이래 거란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926년에 동만주에 위치한 발해국을 멸망시키는 등 주변 이민족과 정권들을 차례로 병합하며 동북 유라시아 북부의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오대 왕조들간의 내부 쟁탈전을 틈타 중국 북부의 연운16주(燕雲16州)¹⁷⁾도 병합하였다. 연운16주는 당대의 주요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들로서 오늘날 북경(燕), 대동(大同, 雲)을 중심으로 한 만리장성 남쪽에 위치한 중국 내 북방 영토들이다.

연운16주가 이민족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황하 평야를 중심으로 산이 거의 없는 중국으로서는 무방비로 노출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만약 북경에서 거란의 기병대가 출격한다면 단시간 내에 당시 중원의 중심지였던 낙양(洛陽)이나 개봉(開封)에 이민족 군대들이 얼마든지 진입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거란에게 중원을 공략하는데 유리한 거점을 제공한 것이다. 왕조의 안보에 크게 위협을 느낀 송태조와 태종(太宗, 939~997, 재위 976~997)은 후주 세종(後周 世宗, 921~959, 재위 954~959) 시기부터 시작했던 북경 이남(以南)에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국방비와 인력을 투입하였고,¹⁸⁾ 또한 태종은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연운16주를 회복하기 위한 북벌에 나서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979년과 986년 두 차례에

and Denis C. Twitchett,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3-153.

17) 연운16주에 대해서는 Twitchett and Tietze, 1994, pp.70-71; Standen, 2009, pp.87-90.

18) 張邦煒, 1996, 『中國封建王朝興亡史(兩宋卷)』,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pp.21-23; Wright, 2005, pp.42-47.

19) 송 태종의 옹희북벌에 관한 최근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張邦煒, 1996, pp.32-34; Lau and Huang, 2009, pp.247-251; 朴志焄, 2010, 「송 태종대 雍熙北伐에 관한 연구」, 『군사』, 74, pp.69-104.

결친 북벌은 송의 패배로 마무리되었다.

거란은 군사적으로 송을 압박하며 당조 이후의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아닌 거란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려 하였다. 이미 양국의 전쟁 결과가 송의 패배로 끝났으나, 997년 송의 진종(眞宗, 968~1022, 재위 997~1022)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거란과 송은 당조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패자를 가려내기 위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거란과 송 양자 간에 전쟁을 통한 승부를 가려내어 동아시아의 패권국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III. “전연의 맹약” 당시의 거란, 중국과 주변국 간의 정황

1. 11세기 초 송과 충돌을 앞둔 거란의 입장

역대 중국 왕조들은 진한시기 이래 유목민들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각장(樵場)’라는 시장을 열어 유목민에게 완화정책을 펼쳤다. 또한 이민족에게 공주를 시집보내어 화친(和親)을 맺거나 물자를 공급하는 조공, 그리고 봉작(封爵)을 수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²⁰⁾ 유목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상품, 즉 말과 고가의 동물 가죽 같은 것들 가지고 중국과 교역을 해야만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란의 입장에서 크게 네 가지 이권을

20) Paul Jakov Smith, 1991, *Taxing heaven's storehouse: Horses, bureaucrats and the destruction of the Sichuan tea industry, 1074-1224*, Cambridge, Mass.: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西嶋定生 著, 武尚清 譯, 2004, 『中国古代帝国的形成与结构—二十等爵制研究』, 北京: 中华书局.

연기 위해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천태후(承天太后)와 성종(聖宗)이 송으로 무리한 원정을 기획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상징적인 패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미 10세기 말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송보다 군사적 우위를 확인했던 거란은 11세기 초 송과의 전면전을 통하여 정치적,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패권은 전통적으로 천자, 천하관(天下觀), 화이관(華夷觀) 등을 통해 동아시아 패권을 오랫동안 독점했던 중국으로부터 거란이 동등한 위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자국의 통치적 안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눈엣가시 같은 고려와 송을 한꺼번에 대적하는 것은 무리였기에 먼저 송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거란 정권의 안정적인 통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고려는 거란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중요한 동아시아 대상국이었다. 고려 문제를 해결해야만 주변의 여진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민족과 정권에게서 거란이 패권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송과의 국제정치나 외교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는 고구려, 발해 이후로 동아시아, 특히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에서 상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였기에 거란 으로서는 고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과의 대치에서 먼저 정치적 승리를 거두어야만 했다. 셋째는 군사적으로 송과 고려를 압박하여 경제적으로 풍부한 조공을 통한 물품 입수와 남방 농경국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외교, 문화 교류를 보장받는 것이다. 유목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영토의 확장이나 남방의 농경국에게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나 통치권 내에 있는 초원만으로는 방대한 제국을 운영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결국 농산물이나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농경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 거란의

또 다른 딜레마였다. 마지막으로 옹희북벌 이래 태종, 진종시기부터 꾸준히 구축하고 있었던 하북지역의 광범위한 도랑을 이용한 송의 방어선이 완성되기 이전에 파괴하는 것이다.²¹⁾ 거란은 오대시기 말 후주 세종의 북벌로 인해 연운16주 중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던 관남 지역 일부를 상실하였다.²²⁾ 거란은 당시 내부 제위 쟁탈전으로 인해 후주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상실한 관남 지역을 탈환해야만 하였다.²³⁾ 또한 태종 이후 송이 하북성의 전략적 요충지에 건설하기 시작한 도랑을 포함한 광범위한 방어선을 파괴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당시 송은 하북지역의 여러 강, 하천 등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제2의 만리장성과 같은 북방 경계선에 촘촘하면서도 넓은 방어선 건설을 추진하였다.

만일 거란의 기마대가 송의 이러한 방어선에 막힌다면 기동력이 떨어져 최대의 군사적 우위라 할 수 있는 기마대는 앞으로 송과의 대결에서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거란의 군사적 우위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향후 송과의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운16주에 대한 방어도 장담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유목민은 공성이나 방어선에 의지하는 것보다 넓은 평야에서 상대를 공세함으로써 방어하기 때문이다. 결국 거란으로서 송과의 전면전을 통해 태종 이후 구축하기 시작한 송의 방어선 건설을 방해하거나 파괴하여 향후 있을지도 모를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

21) 10세기 후반부터 송이 북방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던 도랑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Peter Lorge, “The Great Ditch of China and the Song-Liao border,” 미발표원고; Wright, 2005, pp.48-50.

22) 후주 세종의 북벌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성과들을 참조. 吳宗國, 1996, 中國封建王朝興亡史(隋唐卷),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p.365; Standen, 2009, pp.129-132 참조

23) Twitchett and Tietze, 1994, pp.81-84.

야만 하였다. “전연의 맹약”은 거란이 정치적 안정 이상으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모하게 전쟁을 감행했다는 것이 기존 학계의 평가인데 필자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거란이 정기적으로 공식 외교루트를 통해 문화 교류를 추진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다. 이전의 흉노, 돌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거란은 고려, 송과의 정기적인 사신 교류를 통해 자국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와 송이 가지고 있던 선진 기술과 정보를 사신 왕래를 통해 입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거란과 주변국과의 갈등 - 고려를 중심으로

거란은 송의 건국 이후 계속되는 중국과의 마찰 속에서도 승천태후²⁴⁾(953~1009)의 20여 년간 안정적인 섭정 아래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 주변 유목민족들의 정권을 차례로 정복하여 동북 유라시아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거란의 태조(872~926, 재위 907~926)가 발해를 공략하여 926년 발해국을 멸망시킨 이후, 발해 유민들은 한반도의 통일왕조로 새로이 등장한 고려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²⁵⁾ 이러한 연유로 고려 태조가 국시(國是)로 고구려와 발해의 잃어버린 만주 영토에 대한 회복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고려와 거란 사이에 생기게 된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고구려 고토(故土)를 점령

24) 거란경종(景宗) 황후(皇后)이며 성종의 모후(母后)인 승천태후에 대해서는, (元) 脫脫 等 撰, 1974, 『遼史』 卷七一 后妃傳, 北京: 中華書局, pp.1201-1202; Twitchett and Tietze, 1994, pp.87-91.

25) 고려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참조. 朴龍雲 著, 1989, 『高麗時代史』, 서울: 일지사.

한 거란은 경쟁국이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고려보다 열세하다고 판단, 고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고려는 이처럼 거란과는 적대적 입장을 취했으나 송과는 우호 정책을 펴나갔다.²⁶⁾

고려는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왕조 초기에는 왕위쟁탈 같은 집권층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해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다. 그러나 광종(光宗, 925~975, 재위 949~975)이 등극한 이후 왕권 강화를 통한 정치로 사회가 안정되면서 문벌 중심의 정치체제와 사회질서를 정립하게 되었다. 고려와 송은 서해와 황해(黃海)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류를 했는데 이는 북송(北宋)시기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²⁷⁾ 이처럼 고려는 명백히 ‘친송반거란(親宋反契丹)’ 정책을 취했고 이에 거란은 자국의 안보와 동아시아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를 우선적으로 굴복시켜야만 했다. 993년 동경유수(東京留守) 소손녕(蕭遜寧)이 6만 대군을 거느리고 1차로 고려를 침입한 이래, 거란은 1010년과 1019년의 2, 3차 침략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고려에게 굴복을

26) 송, 고려, 거란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는 Tao Jing-shen, 1988, “Relations between the Sung, the Liao, and Koryo,” in *Two sons of heaven: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Tucson,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pp.79-86.

27) 고려와 송조간의 해양을 통한 교류사에 관한 최근 연구 성과로는 Shiba Yoshinobu, 1970, *Commerce and society in Sung China*, trans. Mark Elvin, Ann Arbor, Mich.: Center for Chinese studies; Shiba Yoshinobu, 1983, “Sung foreign trade: Its scope and organization,”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89-115; Robert Hartwell, 1983, *Tribute missions to China, 960-1126*, Philadelphia; Angela Schottenhammer, 2015, “China’s emergence as a maritime powe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Sung China, 960-1279, part 2*, eds. Denis Twitchett and John W. Chaffe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37-525.

강요하며 압박해왔다.

1004년 전연에서 송과 대치한 것은 거란의 송에 대한 대대적 정벌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당시 주변 정세를 고려해 고려도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거란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고 있었던 송을 먼저 굴복시킨 이후에 고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의도가 보여지는데, 이로써 “전연의 맹약” 이후 고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은 더욱더 강하게 추진된다.

3. 11세기 초 거란과 대치하게 된 송조의 상황

국내 정치 안정과 더불어 풍부한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던 송조는 역대 중국의 여타 왕조와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지만 군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약점으로 인하여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안보’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해야만 하였다.

태종시기 두 차례의 북벌 실패로 중국은 북방의 거란에 대한 군사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는데, 송조 역시 언젠가는 거란과 힘으로 겨루어 동아시아 국제정세에서 수동적인 군사력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도모해야만 하였다.

오대시기 “연운16주”의 할양으로 만리장성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자 송은 거란과 인접한 북방 국경의 방어선 구축에 막대한 경제적 물자를 투입해야만 했다. 게다가 송은 한당시기에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었던 ‘군마(軍馬)’를 북방의 거란, 서북 등의 이민족 정권에 넓은 초원지대가 차단당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군사력을 기병 대신 보병 중심의 편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²⁸⁾ 이것은 11세기 송이 중국 화북

28) Smith, 1991, pp.13-47; Wang Tseng-yu, David Curtis Wright, trans., 2015, “A history of the Sung milita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Sung*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국 학자 Paul Jakov Smith는 전통적으로 유목민은 기병 한 명당 여러 마리의 말을 보유한 반면에 중국은 내륙의 경제적 중심이 농업이고 그 기반이 토지이다 보니 초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⁹⁾ 결국 전근대시기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말의 공급 부족은 송이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열세에 몰리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폴 스미스는 진단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송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북방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한편, 고려를 비롯한 주변 이민족과는 외교전을 통해 거란을 압박하면서 향후 있을 양국 간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있듯 거란의 주변국에 대한 잦은 침략과 고려에 대한 압박은 송으로 하여금 거란과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정면 돌파를 통해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송은 10세기 후반 성공적인 중국대륙 통일을 바탕으로 구축된 정치적 안정, 송태조, 태종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경제적 번영과 그에 따른 문화, 과학기술적 발전 등을 이루고 있었다.³⁰⁾ 마침내 송은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북방의 군사대국인 거란과의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하였다.

China, 960-1279, part 2, eds. Denis Twitchett and John W. Chaffe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14-249.

29) Smith, 1991, pp.14-17.

30) Mark Elvin, 1973,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Peter J. Golas, 1988, “The Sung economy: How big?” *Bulletin of Sung-Yuan Studies*, 20, pp.91-94; Shiba Yoshinobu, Joseph P. McDermott, trans., 2015, “Economic change in China, 960-1279,”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Sung China, 960-1279, part 2*, eds. Denis Twitchett and John W. Chaffe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21-436.

IV. 전연의 “대치”와 “맹약” 과정에서 사신들의 활약

1. 거란의 남침에 대응하는 송 내부의 논쟁

송 진종景德원년(景德元年, 거란 聖宗 統和22年, 서기 1004년) 윤9월, 거란의 승천태후는 아들 성종(971~1031, 재위 982~1031)과 함께 기마대로 구성된 20만 정예 대군을 직접 이끌고 송을 정벌하기 위해 오늘날 중국 북부인 하북성으로 진입하였다.³¹⁾

태종 시기 북벌 이후, 20여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던 송 조정은 이에 당황하여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되었고, 이때 조정의 대신들은 주화파(主和派)와 주전파(主戰派)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당시 부재상(副宰相)이던 참지정사(參知政事) 왕흥약(王欽若, 962~1025)과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진요수(陳堯叟, 961~1017)는 개봉을 포기하고 우선 남방으로 천도한 뒤 거란과 협상하자는 의견이었다. 재상(宰相) 구준(寇準, 961~1023)은 개봉에 집중되어 있던 금군을 진종이 직접 거느리고 적과 맞서야만 거란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³²⁾ 분열되었던 송 조정은 구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마침내 황제를 설득하여 선주전(先主戰), 후협상(後協商)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진종(968~1022, 재위 997~1022)³³⁾은 부친인 태종과 달리 혼란스러

31) (宋) 李燾 撰, 1980, 『續資治通鑑長編』, 卷五七, 眞宗景德元年閏九月條, 北京: 中華書局, pp.1265-1266.

32) 『續資治通鑑長編』, 卷五七, 眞宗景德元年閏九月條, pp.1267-1268.

33) 진종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Karl F. Olsson, 1974, *The structure of power under the third emperor of Sung China: The shifting balance after the peace of Shan-yuan*, diss., University of Chicago; 劉靜貞, 1987, 「北宋前期皇權發展之研究-皇帝政治角色的分析」, 國立臺灣大學; Lau and Huang, 2009, pp. 260-262.

왔던 오대시기나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약한 이미지의 군주였으나 백부 및 부친과 함께 국정을 보좌했던 내로라하는 원로대신들이 있었고, 이에 반해 거란의 성종은 막강한 힘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모친 승천태후가 뒤에서 보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송에는 전쟁 경험이 없는 진종에게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간다면 금군 50만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며 설득한, 그리하여 전연에서 거란과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한 카리스마 넘치는 재상 구준이 있었다.³⁴⁾

당시 구준은 거란의 기마대가 정예병이기는 하지만 보급 등의 문제로 적지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송은 병력 수는 많으나 사기가 부족한 것이 약점인데 만약 어떠한 구심점으로 뭉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수도를 버린다면 군사들이 저항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견하여 반드시 황제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상 구준의 이 같은 냉철한 판단으로 정면 돌파를 제안한 덕분에 송은 전쟁 초기의 국가적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이로써 거란과 송은 979년과 986년 전쟁 이후 20년 만에 다시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전 두 차례 전쟁과 다른 점은 태종 시기 북벌은 주로 연운16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전연에서의 대치는 동아시아 패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양국군을 합쳐 70여만의 병력이 전연에서 대치하는 모습은 전근대시기 중국에서 보기 드문 역사적으로 장대한 광경을 연출하게 되었다.

34) (元) 脫脫 等撰, 1977, 『宋史』, 卷二百八十一, 列傳第四十, 北京: 中華書局, pp.9527-9534.

2. 왕계충을 비롯한 송·거란 사신들의 활약

‘전연’에서 대치한 송과 거란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양국 모두의 사정상 전면전을 감행할 확률은 시작부터 이미 낮은 상태였다.³⁵⁾ 게다가 거란은 당시 송이 촘촘히 구축한 북방의 많은 요새들을 놔두고 곧장 송의 수도인 개봉에서 가까운 전연까지 파죽지세로 내려온 상황이었기에 적진에서 오랫동안 긴 병참선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거란의 주장 소달람(蕭撻覽)이 송의 전주성(澶州城)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하면서 거란은 더 이상 전쟁을 이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³⁶⁾ 특히나 송 천태후의 친척인 소달람의 전사는 고령의 송천태후를 심적으로 동요시켜 더 이상의 위험한 도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사실 전연에서 송의 수도였던 개봉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거란의 입장에서는 946년에 함락시켰던 개봉까지 진격하는 공세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거란으로서는 하루빨리 송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그리하여 거란은 망도전역(望都戰役)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송의 장수 왕계충(王繼忠)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다.³⁷⁾

왕계충은 진중을 황태자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모신 동궁 막료 중의 한 명이었다. 진중이 황제로 즉위하고 그는 북방 운주관찰사(雲州觀察使)로 재직 중에 망도(望都)의 전역에서 거란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³⁸⁾ 왕계충은 부친이 와교관전역(瓦橋關戰役)에서 전사한 연유

35) “전연의 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연구 성과들 참조. Wright, 2005, pp.50-60; Lau and Huang, 2009, pp.262-263; 박지훈, 2011, pp.103-108.

36) 『遼史』 卷八十五 列傳第十五, pp.1313-1314.

37)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十七, 十一月條, pp.1282-1283.

38) 『宋史』 卷二百七十九, 列傳第三十八, pp.9471-9472; 『遼史』 卷八十一, pp.1284-

로 이른 나이에 이미 군직(軍職)계열인 동서반전시(東西班殿侍)에 문음(門蔭)을 통해 관직을 얻었고, 진종이 황태자 시절 동궁에 있을 때는 좌우근시로 배치되어 진종의 최측근이 되기도 하였다.³⁹⁾ 왕계충은 서기 1003년 망도전역에서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용가치를 알아본 성종과 승천태후의 후원 아래 거란에서도 고위관직을 얻어 심지어 태후의 친척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왕계충은 이러한 송과 거란 권력자와의 특별한 인연을 매개로 먼저 승천태후와 성종에게 화의(和議)를 주장하여 설득하였고, 송진종에게도 밀서를 보내 화의를 타진하였다.⁴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송과 거란 중 누가 먼저 화의를 제안했느냐는 것이다. 『송사(宋史)』와 『요사(遼史)』 모두 열전을 가지고 있는 왕계충의 기록에서 찾아보면 『송사』에서는 거란 측이, 『요사』에서는 송측이 먼저 화의를 청한 것으로 나온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당시 화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송, 거란 모두 상대방에게 명분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인식이 높았던 듯하다. 후일 송신종(宋神宗, 1048~1085, 재위 1067~1085)이 고려문종(高麗文宗, 1019~1083, 재위 1046~1083)에게 비공식적인 사신의 형태로 파견한 송상(宋商)을 통해 송, 고려의 국교재개를 타진한 것과는 매우 유사하다. 확실한 것은 왕계충이 송, 거란 양국의 최고 권력자인 승천태후, 성종, 진종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 덕분에 그가 중요한 시기에 때마침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송, 거란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거란은 비공식적으로 이흥(李興) 등 4인의 소교(小校), 즉 말

1285.

39) 진종의 동궁 시절 막부들에 대해서는, 陳峰 著, 2004, 『北宋武將群體與相關問題研究』, 北京: 中華書局, pp.47-51 참조.

40) 『續資治通鑑長編』, 卷五七, 眞宗景德元年閏九月條, p.1268.

단 장교들에게 왕계충의 밀서를 주어 송 막주(莫州) 부서(部署)인 석보(石普)를 만나 의사를 타진하게 되었다.⁴¹⁾ 왕계충의 밀사를 통해 거란의 뜻을 접한 송은 다시 한 번 주전파와 주화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⁴²⁾ 구준의 간언으로 불가피하게 친정(親征)을 하게 된 진종은 처음부터 거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다. 979년과 986년에 두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있는 송이 950년대 후주시기부터 육성하고 유지해왔던 중원 통일을 위한 군사력은 사실상 궤멸한 상태였다.⁴³⁾ 이로 인해 영토의 확대나 회복 등을 위해 대외로 뻗어나갈 군사력은 약화되어 있었고 불가피하게 수세적인 방어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송은 내치(內治) 중심으로 국가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민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재물을 통한 회유 등의 방법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다. 구준 등의 주전파도 교섭을 위해서 먼저 주전을 한 후 승기를 잡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방법론만 달랐을 뿐 기본적인 對거란 정책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마침내 송은 1004년 10월에 추밀사(樞密使) 왕계영(王繼英, 946~1006)⁴⁴⁾이 추천한 조이용(曹利用, 971~1029)을 거란에 공식 특사로 파견하여 왕계충이 제안한 화의를 협상하고자 하였다.⁴⁵⁾ 왕계영은 왕계충과 마찬가지로 진종의 동궁 시절 측근으로 당시 군정의 수장인 추밀사로서 조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조이용은 하북(河北) 조주(趙州) 출신으로 부친의 덕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한 신흥엘리트

41) 『宋史』 卷三百二十四, 列傳第八十三, pp.10471-10475.

42) 『續資治通鑑長編』, 卷五七, 眞宗景德元年閏九月條, pp.1268-1269.

43) 張邦煒, 1996, p.34.

44) 『宋史』 卷二百六十八, 列傳第二十七, pp.9228-9230.

45)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冬十月條, pp.1278-1279; 『宋史』 卷二百九十, 列傳第四十九, pp.9705-9708.

출신으로 전연의 맹약에서 공을 세우고 이후 승승장구하여 추밀사의 지위까지 출세한 인물이다.

조이용과 거란의 만남에서 승천태후와 성종은 예상대로 관남(關南) 지역의 군사요충지로 연운16주 중 후주시기 세종이 탈환했던 지역의 반환을 요구했고, 조이용은 즉시 거절하였다.⁴⁶⁾ 이는 당시 송의 국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송조의 기본 외교정책에서 영토는 빼앗기지 말고 재물로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송 태종의 유고에 의한 것이었다.⁴⁷⁾

관남은 거란 내부에서 제위 계승 쟁탈전이 치열했던 950년대 후주 세종이 북벌을 통해 탈환한 곳으로, 거란이 보기에 연운16주는 후진(後晉)으로부터 받은 거란의 땅인데 그중 관남을 후주가 빼앗았으니 응당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거란은 승자의 입장으로 실지(失地)를 회복해야만 이번 남벌에 의미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위신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다. 반면 송조 입장에서는 연운16주 모두를 되찾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일부 되찾은 관남지역을 거란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송 또한 내부의 명분이나 위신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첫 협상부터 양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렇게 관남지역을 둘러싼 첫 번째 협상에서 영토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였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란과 송은 여러 이유로 양측 모두 화의를 위한 교섭을 원했기에 1004년 12월 거란은 좌비룡사(左飛龍使) 한기(韓杞)를 첫 공식 사절로 임명하여 조이용과 함께 송에 파견하였다.⁴⁸⁾

46)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一月條, pp.1287-1288; Wright, 2005, pp.64-65.

47) 朴志焄, 2011, p.109. 송대 祖宗의 法에 대해서는 John W. Chaffee, 1999, *Branches of heaven: A history of the imperial clan of Sung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鄧小南, 2006, 『祖宗之法: 北宋前期政治述略』, 北京: 三聯書店.

예상대로 거란이 관남지역에 대한 영토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 번 진중은 관남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송측 대표 사신인 조이용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 재물을 통해서만 협상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리하여 조이용은 한기와 함께 또다시 거란으로 떠나 승천태후와 황제 성종을 만나게 된다.

이때의 만남에서도 거란은 또다시 관남 지역을 언급하며 반환을 요구하였다.⁴⁹⁾ 조이용은 후진과 후주의 일은 송대의 일이 아니므로 이번 일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영토 문제는 들어줄 수 없지만, 해마다 세폐(歲幣)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⁵⁰⁾ 조이용을 사신으로 보내기 전에 거란에 보낼 재물의 규모에 대해 진중은 은(銀) 100만냥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언질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상 기준은 조이용을 따로 불러 황제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은 30만 이상은 안된다고 엄하게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협상의 결과는 송측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은 10만냥과 견(絹) 20만필로 화의를 맺기로 합의되었다.

이상과 같이 송과 거란은 조이용과 한기를 두 차례나 사신으로 파견하면서 기본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게 된다. 거란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목적 중의 하나인 관남지역을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송 측으로부터 화의를 하자는 공식 제의를 먼저 받아 명분을 지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으로부터 매년 공식적인 세폐를 받아 이윤도 챙겼다. 송의

48)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一月條, pp.1287-1288; Wright, 2005, pp.68-70; 朴志焄, 2011, pp.109-110.

49)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二月條, pp.1290-1291; Wright, 2005, pp.71-72; 朴志焄, 2011, pp.110-111.

50) (明) 陳邦瞻 編, 1977, 『宋史紀事本末』, 卷二十一, 「契丹盟好」, 北京: 中華書局, p.145; 이석현, 2009, pp.182-183.

입장에서도 송대 史書 기록에 따르면 명분상으로는 왕계충을 통해 거란이 먼저 화의를 청했다고 하고, 세폐 역시 원래 예상했던 액수보다 적은 비용으로 북방 경계선에 대한 안보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다만, 송 측 명분에 불리한 부분은 대외적으로는 진종이 거란의 승천태후를 숙모로 부르기로 하고, 성종과는 형제의 의를 맺는 형식으로 화의 교섭을 매듭지은 것이다. 이것은 하늘 아래 천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동등(同等)한 천자, 즉 거란과 송이 상호 동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이러한 “전연의 맹약”은 후일 진종이 무리하게 봉선(封禪)⁵¹⁾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의례 의식에 집착하여 막대한 국가 비용을 써가며 실추된 천자의 권위를 드높이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전연에서 화의의 기본적인 핵심내용을 조이용과 한기를 통해 합의한 후, 정식으로 실무진이 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였다. 송조는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안인(趙安仁, 958~1018)⁵²⁾, 서경좌장고사(西京左藏庫使) 이계창(李繼昌, 948~1019)⁵³⁾, 거란은 우감문위대장군(右監門衛大將軍) 요간지(姚東之)⁵⁴⁾, 서상합문사(西上閤門使) 정진(丁振)⁵⁵⁾ 등의 실무관료들이 사신 업무를 수행하여 양 진영을 오가며 교섭을 진행하였다.⁵⁶⁾ 여러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04년 12월에 송은 이계창을, 거란은 정진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양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근거

51) 송 진종의 봉선에 대해서는 Lau and Huang, 2009, pp.270-273

52)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二月甲申條, p.1291.

53)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二月丙戌條, pp.1291-1292, 1297.

54)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二月甲申~丙戌條, pp.1291.

55)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二月條, p.1297.

56) “전연의 맹약”의 마지막 실무선에서 처리 과정에 대한 역사는 다음 책에서 상세히 기술. Wright, 2005, pp.71-79.

로 한 칙서를 거란 성종과 송 진종에게 바침으로써 양국은 맹약을 위
한 최종적 합의를 보았다.⁵⁷⁾ 역사적인 “전연의 맹약”은 이처럼 송, 거
란 양국 사신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파견과 협상을 통
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맺어
진 것이다.

V. “전연의 맹약” 주요 내용과 평가

1. “전연의 맹약”의 주요 내용

맹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송은 거란에게
매년 은 10만냥과 견 20만필을 세폐로 보내고, 둘째 양국의 국경선
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며, 셋째 거란과 송은 의형제를 맺어 송의 황
제는 형으로, 거란의 황제는 동생으로 대우하고, 또한 송 황제는 거란
의 승천태후를 숙모로 모신다는 것이다.⁵⁸⁾ 이외에도 송은 매년 거란
황제와 승천태후의 생일, 거란황제의 즉위나 서거 등의 주요 행사에
사신을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거란 역시 송 황제의 주요 행사에 사신

57) 『續資治通鑑長編』, 卷五八, 眞宗景德元年十二月條, p.1297.

58) “전연의 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자료들을 참조. 『續資治通鑑長編』, 卷五
八, 眞宗景德元年十二月條, pp.1290-1291; Tao Jing-shen, 1983, Barbarians or
northerners: Northern Sung images of the Khitans,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66-86; Wang Gungwu, 1983,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47-65; Wright, 2005,
pp.71-73; Lau and Huang, 2009, p.267.

을 보내는 것으로 매년 몇 차례의 사신 파견을 통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었다.

“전연의 맹약”은 기본적으로 거란과 송이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스스로를 하늘이 내린 ‘천자의 나라’로 여겼으며 주변 오랑캐들을 아우르며 중국식 문화가 ‘문명’이라며 이를 유지하고 전파하는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 당 시기 군사력의 열세로 간헐적으로 북방의 유목제국에 공주를 시집 보내는 ‘화친’이나 임시방편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중국식 ‘조공’을 행하기도 하였으나 송조와 같이 맹약을 맺어 거란에 1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와 조공을 행한 역사는 없었다. 게다가 거란의 황태후나 황제 생일, 서거 조문,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경우는 중국사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송의 입장에서는 북방제국인 거란과 979년, 986년 두 차례에 걸친 북벌에서 패배한 이후 다시 대적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현실적인 안보와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맹약을 체결한 것이다.

거란은 송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았고, 또한 상징적으로도 송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중국식 조공을 받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실리를 챙겼다.⁵⁹⁾ 거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적 승리였으며, “전연의 맹약” 이후 거란은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이전과 다른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학자 엽송기(葉崇岐)의 연구에 따르면 송과 거란은 “전연의 맹

59) Yang Lien-sheng (楊聯陞), 1968,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ed. John K. Fairbank,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21; 윤영인, 2013, 「하송의 5년전쟁(1039-44)과 11세기 동아시아 세력균형」, 『만주연구』, 16, p.19.

약”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매년 두세 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여 양측 함께 300~400여 차례의 사신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⁶⁰⁾ 이처럼 “전연의 맹약” 이후 중국대륙의 송조와 유라시아 동북지역의 유목민족인 거란제국은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빈번한 사신 왕래를 통해 활발한 외교관계를 유지했었다.

2. “전연의 맹약”의 의의와 후대에 미친 영향

송은 하늘 아래 두 명의 천자라는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중국 전통의 천자 중심의 천하관에 큰 상처를 입는 한편, 이민족 군주에게 경제적 대가로 조공을 바쳐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여 “평화”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어 이후 100여 년 동안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 같은 “전연의 맹약”으로 송은 오대시기에 빼앗긴 연운16주 고토(古土) 회복에는 실패하였으나, “돈으로 무엇보다 값진 평화를 샀다”라는 구미 학자들의 평가대로 10세기 후반 대륙 통일 이후, 혼란스러웠던 사회 내부와 거란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게 되었다.⁶¹⁾ 거란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서 송은 국내의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농업과 상공업, 수공업 등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다. 또

60) 葉崇岐 著, 1980, 『宋史叢考』, 北京: 中華書局, pp.283-375.

61) 물론 전통적인 중국 학자들 입장에서는 송조와 거란의 천자와 주변 오랑캐 관계가 대등한 형제관계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당시 송 조정이나 사대부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다. 후일 송진종의 봉선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Wright, 2005, pp.89-99; Lau and Huang, 2009, pp.270-273; Suzanne E. Cahill, 1981, Taoism at the Sung court: The heavenly text affair of 1008, *Bulletin of Sung-Yuan Studies*, 16, pp.23-44.

한 주변국들과의 자유로운 교역 활동으로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 해상 무역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거란은 당시 북방의 부족한 경제적 사정을 송과 고려로부터 받은 조공품으로 보충할 수 있었고, 예전의 유목제국들이 누리지 못했던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경제 번영을 기반으로 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된다. 거란은 기본적으로 북방의 초원지대는 유목민의 지배 형태를 유지하면서 후당(後唐)을 멸하고 얻은 ‘연운16주’에서는 중국 영토에 속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식 통치구조를 정립하였다. 거란은 관료의 선발에 있어서도 북방민족 외에 한족 등을 포함한 다민족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여러 민족들로(multi-ethnic) 구성된 제국의 모습을 갖추고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통치, 제국의 운영 기술 등 많은 정치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서도 거란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거란은 문화적 소양이 깊은 한족이나 승려를 포함한 비교적 높은 계급의 관료들을 송에 파견하였다. 그러면서 문학적 조예가 깊은 당송 8대가 구양수, 소철 같은 인물을 파견해달라고 송에 요청하는 사례⁶²⁾를 사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전연의 맹약” 10여 년 후에는 거란과 고려 사이에도 화의를 체결하여 11세기 초 동아시아는 이후 100여 년간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 후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송의 주변국이었던 고려도 송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발해의 기반이었던 만주 고토 회복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송, 거란과의 교류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게 된다. 고려가 이룬 수많은 역사적 업적은 향후 조선과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62) Herbert Franke, 1983, “Sung embassy: Some general observations,”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16-148.

VI. 나오는 말

미국과 구소비에트연방공화국 사이의 힘겨루기를 하던 미·소 냉전 구도가 20세기 후반 붕괴되고 오늘날 세계와 동아시아에서는 힘의 균형이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이 서서히 경쟁력을 회복하며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30여년에 걸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현재 모습은 과거 “전연의 맹약” 시절의 거란과 송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 정립을 위한 갈등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은 이미 천 년 전 동아시아 정세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볼 수 있다. 바로 패권국 간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립될 때 한국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과거에 사신들의 왕래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외교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주히 사방으로 왕래하고 있다. 10~11세기 거란과 송 그리고 주변국 사신들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를 위한 활약상과 역할 등의 사례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참고가 되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전연의 맹약”은 거란과 송 모두의 필요에 의해 양국의 정책 결정자와 사신들의 활약으로 연출된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이를 통해 양자는 각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게 된 상생전략(相生戰略)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동아시아는 역사상 가장 평화스러웠던 1백여 년 동안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투는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선례를 반추(反芻)해보아야 할 역사적 사

실이다. 이를 거울 삼아 오늘날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외교관, 정부 관료들은 상생하는 협상의 기술과 감각을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明) 陳邦瞻 編, 1977, 『宋史紀事本末』, 北京: 中華書局.
- (宋) 李燾 撰, 1980,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 (元) 脫脫 等撰, 1977, 『宋史』, 北京: 中華書局.
- (元) 脫脫 等 撰, 1974, 『遼史』, 北京: 中華書局.
-
- 朴龍雲 著, 1989, 『高麗時代史』, 서울: 일지사.
- 朴志焄, 1989, 「宋代 華夷論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朴志焄, 2010, 「송 태종대 雍熙北伐에 관한 연구」, 『군사』, 74, pp.69-104.
- 박지훈, 2011, 「송요간의 전쟁과 和議 - 澶淵의 전역과 맹약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4, pp.95-130.
-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의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동양사학연구』, 101, pp.119-144.
- 윤영인, 2013, 「하-송의 5년전쟁(1039-44)과 11세기 동아시아 세력균형」, 『만주연구』, 16, pp.7-28.
- 이석현, 2009, 「澶淵의 盟의 성립과 宋人의 認識」, 『동북아역사논총』, 26, pp.165-203.
- 河元洙, 1995, 「宋代 士大夫論」, 『강좌중국사 III---士大夫社會와 蒙古帝國』, 지식산업사 (재판), pp.71-125.
-
- 陳峰 著, 2004, 『北宋武將群體與相關問題研究』, 北京: 中華書局.
- 陳述 著, 1986, 『契丹政治史稿』, 北京: 人民出版社.
- 鄧小南, 2006, 『祖宗之法: 北宋前期政治述略』, 北京: 三聯書店.
- 劉靜貞, 1987, 「北宋前期皇權發展之研究--皇帝政治角色的分析」, 國立臺灣大學, 박사학위논문.
- 舒焚 著, 1984, 『遼史稿』,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吳宗國, 1996, 『中國封建王朝興亡史(隋唐卷)』,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西嶋定生 著, 武尚清 譯, 2004, 『中国古代帝國的形성과結構—二十等爵制研究』,
北京: 中華書局.

葉崇岐 著, 1980, 『宋史叢考』, 北京: 中華書局.

張邦煒, 1996, 『中國封建王朝興亡史(兩宋卷)』,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張正明 著, 1979, 『契丹史略』, 北京: 中華書局.

愛宕松男, 1959, 『契丹古代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文學部內東洋史研究會.

西嶋定生 著,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社.

Backus, Charles, 1981, *The Nan-chao kingdom and T'ang China's Southwestern frontier*,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hill, Suzanne E., 1981, "Taoism at the Sung court: The heavenly text affair of
1008," *Bulletin of Sung-Yuan Studies*, 16, pp.23-44.

Chaffee, John W., 1999, *Branches of heaven: A history of the imperial clan of Sung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Clark, Hugh R., 2009, "The Southern kingdoms between the T'ang and the Sung,
907-979,"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Part 1*, Eds.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33-205.

Elvin, Mark, 1973,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Fairbank, John K., 1941,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 pp.135-246.

Fairbank, John K.,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Franke, Herbert, 1983, "Sung embassies: Some general observations,"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16-148.

-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1994, "Introduction,"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Eds.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42.
- Golas, Peter J., 1988, "The Sung economy: How big?" *Bulletin of Sung-Yuan Studies*, 20, pp.91-94.
- Hartwell, Robert, 1983, *Tribute missions to China, 960-1126*, Philadelphia.
- Holcome, Charles, 2019, "The sixteen kingdom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2: *The Six Dynasties, 220-589*, Eds. Albert E. Dien and Keith N. Knapp,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9-144.
- Johnson, David G., 1977, "The last years of a great clan: The Li family of Chao chun in late T'ang and early Su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 No. 1, pp.5-102.
- Lau, Nap-yin (劉立言) and Huang K'uan-chung (黃寬重), 2009, "Founding and consolidation of the Sung dynasty under T'ai-tsu (960-976), T'ai-tsung (976- 997), and Chen-tsung (997-1022),"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Part 1*, Eds. Denis C.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06-278.
- Lewis, Mark Edward, 2009, *China's cosmopolitan empire: The Tang dynast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Lorge, Peter, "The Great Ditch of China and the Song-Liao border," 미발표원고.
- Loewe, Michael, 1986,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A.D. 220*, Eds. Denis C. Twitchett and Michael Loew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26-746.
- McKitterick, Rosamond, 1983, *The Frankish kingdoms under the Carolingians, 751-987*,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Olsson, Karl F., 1974, *The structure of power under the third emperor of Sung China: The shifting balance after the peace of Shan-yuan*, Diss., University of

- Chicago.
- Schottenhammer, Angela, 2015, “China’s emergence as a maritime power,”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Sung China, 960-1279, Part 2*, Eds. Denis Twitchett and John W. Chaffe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37-525.
- Shiba, Yoshinobu, 1970, *Commerce and society in Sung China*, trans. Mark Elvin, Ann Arbor, Mich.: Center for Chinese studies.
- Shiba, Yoshinobu, 1983, “Sung foreign trade: Its scope and organization,”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89-115.
- Shiba, Yoshinobu, Joseph P. McDermott, Trans., 2015, “Economic change in China, 960-1279,”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Sung China, 960-1279*, part 2, Eds. Denis Twitchett and John W. Chaffe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21-436.
- Sinor, Denis, Ed., 1990,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Smith, Paul Jakov, 1991, *Taxing heaven’s storehouse: Horses, bureaucrats and the destruction of the Sichuan tea industry, 1074-1224*, Cambridge, Mass.: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 Somers, Robert M., 1979, “The end of the T’ang,”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1*, Ed. Denis C. Twitchett,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14-762.
- Standen, Naomi, 2009, “The Five dynastie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Part 1*, Eds.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8-132.
- Tao Jing-shen (陶晉生), 1988, *Two sons of heaven: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Tucson,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Tao Jing-shen, 1988, "Relations between the Sung, the Liao, and Koryo," In *Two sons of heaven: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Tucson,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pp.79-86.
- Tao Jing-shen, 1983, "Barbarians or norhemers: Northern Sung images of the Khitans,"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66-86.
- Twitchett, Denis C. and Klaus-Peter Tietze, 1994, "The Liao,"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Eds. Herbert Franke and Denis C. Twitchett,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43-153.
- Wang Gungwu, 1983,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14th centuries*, Ed. Morris Rossabi,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47-65.
- Wang Tseng-yu, David Curtis Wright, Trans., 2015, "A history of the Sung milita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Sung China, 960-1279, Part 2*, eds. Denis Twitchett and John W. Chaffe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14-249.
- Worthy, Edmund H., Jr., 1976, "The founding of Sung China, 950-1000: Integrative changes in military and political institutions," Diss., Princeton University.
- Wright, David Curtis, 2005,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 Leiden and Boston: Brill.
- Yang, Lien-sheng (楊聯陞), 1968,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Ed. John K. Fairbank,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Yu Ying-shih, 1986, "Han foreign relation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A.D. 220*, Eds. De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77-462.

The Imperial Envoys of Khitan Empire and Song China, 1004-1005: Reconsidering the Case Study of the “Treaty of Shanyuan”

Lee Chang Wook(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is paper, “The imperial envoys of Khitan Empire and Song China in 1004-1005: Reconsidering the case of the “Treaty of Shanyuan,”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of East Asia during the early eleventh century. Specifically, this study addresses the behind the scenes of the complicated policy making as well as various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Khitan and Song high policy makers and their main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foreign envoys. Although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the “Shanyuan Treaty,”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history. Unlike such studies, this paper will concentrate on the other unrepresented history of the foreign envoys as well as their top policy makers of the Khitan and Song Empires by (1) trac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arly 11th century East Asia, (2) describing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of Khitan and Song China policy-makings as well as their detailed activities of the foreign envoys. The historical impact of the “Shanyuan Treaty” is enormous that it not only has influenced future Chinese and East Asia history, but it is also crucial in establishing a peaceful and prosperous East Asia during the following next century.

key Words

Khitans, Shanyuan Treaty, Yan-Yun 16 Prefectures, Empress Chengtian,
Wang Jizhong